

# 공상과학소설의 아버지 '쥘 베르네'

세상을 떠난 뒤 거의 한세기가 지난 요즘, 공상과학소설의 아버지 '쥘 베르네' (1828~1905)가 새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63년에 완성되었으나 오랫동안 금고 속에 묻혀 있던 그의 마지막 작품 '20세기의 파리'가 1989년 그의 증손자에게 발견되어 최근 영문번역판이 출판된 것이다. 베르네는 이 작품에서 유리와 강철로 된 마천루, 고속열차, 가스추진 자동차, 계산기, 팩스기계 그리고 범지구통신망으로 지새는 20세기 파리의 생활을 배경으로 물질주의적인 반(反)유토피아향(鄉)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이상적인 한 청년의 생활을 묘사하고 있다.

玄 源 福

〈과학저널리스트/본지 편집위원〉

## 야심적인 극작가

베르네는 평생에 60여편의 소설을 썼는데 꼼꼼할 정도로 사실에 바탕을 둔 그의 작품은 그동안 세계의 대표적인 많은 과학자, 엔지니어, 발명가, 탐험가들에게 영감을 주어 이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중에는 최초의 구형(球形) 심해잠수함을 고안하고 운전한 '윌리엄 비비', 남극탐험가 '리처드 버드' 제독, 최초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 그리고 달표면을 보행한 최초의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 등이 있다. 베르네 이전에 나온 소설중에도

과학적인 배경을 가진 작품은 있었으나 베르네처럼 과학적인 기법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지는 못했다. 그래서 특히 미국인들을 포함하여 많은 독자들은 베르네가 스스로 과학자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놀라움에 관하여 그렇게 정확하고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베르네는 당초에는 과학자도 아니고 기술자도 아니었다. 1828년 2월 8일 한창 번영을 구가하던 프랑스의 항구도시 낭뜨에서 태어난 베르네가 20세가 되었을 때 그의 가족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법률가가 되라고 파리에 있는 대학으로 보냈다. 그러나 젊은 베르네는 충실하게 법률공부를 마친 뒤 파리의 문학세계로 끌려 들어갔다. 친구이며 후견자인 극작가·소설가 알렉산드라 듀마(1802~1870)의 권고를 받아들여 시와 희곡을 쓰기 시작했다. 리릭극장의 야심적인 젊은 극작가 베르네는 대중잡지에 과학 및 역사에 관한 짧은 화제거리 기사를 기고하여 용돈을 벌었다. 그는 참고서적과 과학저널 그리고 신문에서 이런 기사 작성에 필요한 자료들을 찾으면서 이런 기술문헌을 소설에 수용하여 과학원리를 픽션과 섞은

이른바 '과학소설'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당시 프랑스인들은 과학과 공학 그리고 탐험에 대해 매우 뜨거운 관심을 보여 주고 있었다. 빠른 걸음으로 진행되는 산업화와 기술의 성장을 구가하던 이 시절의 프랑스에서는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은 글자 그대로 대중의 영웅이었다. 더욱이 오랫동안 로마카톨릭교회의 영향 아래서 공립학교의 과학교육은 부실을 면할 수 없던 형편에서 과학교육소설에 대한 수요를 크게 부추기지 않을 수 없었다.

베르느는 작품을 계획할 때는 특히 사촌인 수학자 앙리 가르세, 탐험가요 저명한 물리학자 및 천문학자인 프랑소아 아라고의 동생 자크 아라고 그리고 '나다르'라는 필명으로 파리인들에게 잘 알려진 페릭스 투르나손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과 상의했다. 나다르는 또 베르느에게 최초의 습기측정기 발명자인 자크 바비네와 헬리콥터설계 전문가인 가브리엘 라 란델과 같은 저명한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을 소개했다. 그래서 그는 여러 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과학기술지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쓸 수 있었다.

### 우주탐험의 길잡이

1864년 베르느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한 작품 '지구 중심으로의 여행'을 완성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지질학과 고생물학 그리고 반(反)진화이론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었다. 이 작품에서는 젊은 주인공 알렉스와

그의 삼촌인 리덴브룩이 지구중심으로 내려가면서 지하에서 선사시대의 세계를 발견한다. 다음 해인 1865년에 펴낸 작품인 '지구에서 달까지'에서 베르느는 이런 여행을 공상적으로만 서술하던 문학의 전통을 깨고 과학원리를 바탕으로 추정해 나갔다. 그 결과 이 소설의 예언적인 수준은 매우 높았다. 예컨대 베르느는 발사장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캐나베럴에서 멀지 않은 장



▲ 줄 베르느(1828~1905)

소로 선택했다. 또 독자들에게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는데 필요한 초기의 속력도 제시했다.

이어서 펴낸 속편 '달의 주변'에서 베르느는 무중력의 영향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우주선의 재입권과 태평양상에 착수하는 모습을 묘사했는데 놀랍게도 그 장소는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갔다가 돌아올 때 착수한 곳에서 불과 3마일(4.8k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아무튼 우주비행을 개척한 많은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베르느의 작품을 읽었다. 그래서 만약에 베르느가 이런 작품을 쓰지 않았다면 20세기

우주비행사들이 크게 실패했을지 모른다고 해도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다. 과학원리에 전념했던 베르느는 한세기 뒤에 우주비행 엔지니어들이 당면한 것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들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베르느가 이런 문제에 대해 용의주도하게 이끌어 낸 해답이 현대적인 해결책과 같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못된다.

### '80일간의 세계일주'

1869년 베르느는 '해저 2만해리(海里)'라는 세계 최초의 해양소설을 탈고했다. 이 대하소설은 베르느의 작품중에서 가장 많이 읽힌 소설이었으나 작품의 구상부터 순탄치 않았다. 베르느와 그의 후견인인 출판업자 피에르 줄 헛젤은 이 작품에서 잠수함 '노틸러스'호의 네모함장의 성격을 둘러싸고 크게 의견을 달리했다. 헛젤은 네모가 노예무역에 대한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적으로 묘사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에게는 일부의 선박을 무자비하게 공격해도 좋다는 이념적인 정당성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베르느는 네모가 폴란드인이어야 하며 5년전 폴란드인의 반항을 유혈 제압한 러시아황제에 대해 한없는 증오를 퍼부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헛젤은 베르느의 구상대로 한다면 외교적으로 말썽이 생겨 베르느의 책이 많이 팔리는 러시아에서 이 책의 판매가 금지될지 모른다고 두려워했다. 마침내 타협점을 찾은 이들은 네모의 정확한 동기를 모호하게 남겨준 채 그저 막연하



▲ 베르네의 1865년 작품 '지구에서 달까지 그리고 달 주변'에서 묘사된 착수(着水)의 모습(왼쪽)은 한세기 후인 1969년 달 표면에서 돌아온 아폴로 11호의 우주비행사들(오른쪽)을 회수하는 장면과 너무나 흡사하다.

게 자유의 투사이며 억압에 대한 복수자로 규정했다. 그런데 1954년 제작된 '해저 2만해리' 영화의 제작자들은 네모의 분노의 표적을 무기 제작업자들로 설정했다.

이어서 1872년에 쓴 '80일간의 세계일주'는 베르네가 재정적으로 가장 성공한 작품이었다. 주인공들을 먼 곳으로 운반하기 위해 거짓말 같은 발명품이 필요했던 다른 가상여행과는 달리 이 작품에서는 당시 이미 있는 수송기관을 사용했다. 침착한 영국인과 기지가 뛰어난 그의 하인이 온갖 모험을 경험하면서 서둘러 지구를 도는 모습을 그린 이 소설은 당초 파리의 한 신문에서 연재로 출판되었는데 서스펜스로 넘치는 이 작품은 회를 거듭할수록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신문독자의 수를 3배로 끌어올렸다. 연재가 끝나자 곧 출판된 책은 프랑스와 해외에서 기록적인 판매고를 올려 프랑스에서만도 10만8천

부가 팔렸다. 베르네의 작품은 나오기만 하면 프랑스 내에서 3만5천에서 5만부가 나갔다.

### 환경보호를 위해

베르네는 이미 한세기 전에 환경 파괴를 비판하는 작품을 썼다. 예컨대 '프로펠러섬'에서 그는 폴리네시아의 여러 섬에서 토착문화를 파괴한 정치가들과 선교사들의 재앙을 묘사했다. '아이스 스팅크스'에서는 고래들의 멸종시기가 다가왔다고 지적했다. 베르네는 또 '괴짜의 소원'이라는 작품에서는 독자들에게 석유업계가 빚어내는 오염을 일깨워 주었고 1901년의 작품인 '트리탐의 촌락'에서는 상아를 얻으려고 코끼리를 마구잡는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한편 '지구에서 달까지'로 시작된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인 '북극의 구매'에서 베르네의 등장인물들은 유인캡슐을 우주로 발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대신 이들은 거대한 대포를 발사하여 지구축의 각도를 바꿔 보려고 한다. 이런 시도의 결과 발생하는 파국적인 환경과 인간의 피해는 아랑곳 없이 이들은 극의 빙관(氷冠)을 녹여 방대한 광물 자원을 찾으려고 한다.

말년의 베르네는 건강이 좋지않은 데도 매년 두세권의 작품을 썼다. 그러나 그의 말년의 작품들은 잘 팔리지 않았다. 예컨대 '프로펠러섬'과 '아이스 스팅크스'는 만권 이하가 팔렸고 '바다의 침략'과 같은 마지막 작품들은 초판(4천~5천부)도 다 나가지 않았다. 그는 78회 생일이 지난 뒤 얼마 안되어 중병에 걸렸다. 1905년 3월 24일 베르네는 부인 오노린에게 가족들을 병상에 모이게 하고 조용히 숨을 거뒀다. 그의 묘에 세운 기념조각은 무덤에서 일어난 베르네가 별들을 향해 한팔을 뻗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